



## 제2장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설계

### - 인지면접 테스트 결과 -

박영실 · 박현정

## 제1절 머리말

### 1. 연구배경

다음의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인 2015년은 인구센서스 기원시점인 1925년과 비교한다면 90주년이, 인구주택국세조사의 시점인 1960년과 비교한다면 55주년이 되는 해로 인구주택총조사는 한 세기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우리나라의 굵직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토대가 되어 왔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사회 및 조사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조사표를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껏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 개발이 이루어져왔으나,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시계열 유지 목적 하에 수십 년간 워딩 변화 없이 조사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혼인상태 항목의 경우 미혼·배우자있음·이혼·사별의 네 가지 응답범주(response category)가 2010년 조사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응답범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거 및 별거 형태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신문칼럼에서는 혼외출생아수의 증가경향을 두고, 결혼하지 않은 자식의 동거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1)</sup>

1) 경향신문 8월 27일자 여적 칼럼에서는 2012년 6월 인구동향자료를 인용하며, 1981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로 높아진 혼외출생아수 9,959명을 두고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 동거를 한다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불효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좀처럼 결혼하지 않으려는 요즘은 사고라도 쳐서 손자를 안고 오는 자식이 효자라는 우스갯말까지 나왔다”고 사회현상의 변화를 적시하였다.

조사환경의 변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도입된 인터넷 조사(internet survey)는 변곡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원 면접’이라는 기존 대면조사(face-to-face survey)의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인터넷 조사는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응답자 기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법이다. 이는 종이조사표를 전자조사표로 구현하는 것과 조사원 없이 응답자가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조사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이다. 그러나 ‘전자조사표’와 달리 ‘응답자 기입’에 대해서는 간과되어왔던 측면이 있다. 기존의 조사표에서 사용되던 항목의 워딩이 그대로 인터넷 조사표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이 사용되는 조사의 모든 조사표에서 동일한 워딩을 사용하라는 원칙에는 부합할지 모르나(Census, 2006), 조사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용어가 응답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경우 조사원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조사에서 정확한 응답을 얻어낼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응답자 부재 및 거절 등으로 조사원과 응답자가 점점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현재의 조사환경에서 인터넷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며, 또한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조사항목에 반영하는 일 또한 중요한 요구사항인 만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그러한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표에 인지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 문제를 진단, 개선안을 제언함으로써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표(long form)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은 비교적 소규모의 자발적인 참가자(subject)들에게 응답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응답자의 이해 및 해석 과정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응답 오차(response error)를 최소화하는 조사표 설계 및 평가 방법 중 하나로 그 효과를 인정받아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sup>3)</sup> 특히 외국의 주요 통계작성 기관에서는 조사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반드시 인지면접 등을 통한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Beatty and Willis, 2007).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조사표 테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연구는 첫째 인지면접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테스트한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항목들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하고 있으며, 둘째 조사표 개선안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문서화(documentation) 작업을 했다는

2) 현장조사에서 응답자(respondent)와 구별하기 위해 인지면접 대상자를 응답자가 아닌 참가자로 표현하였다. 마찬가지로 interviewer는 현장조사에서는 조사원, 인지면접에서는 면접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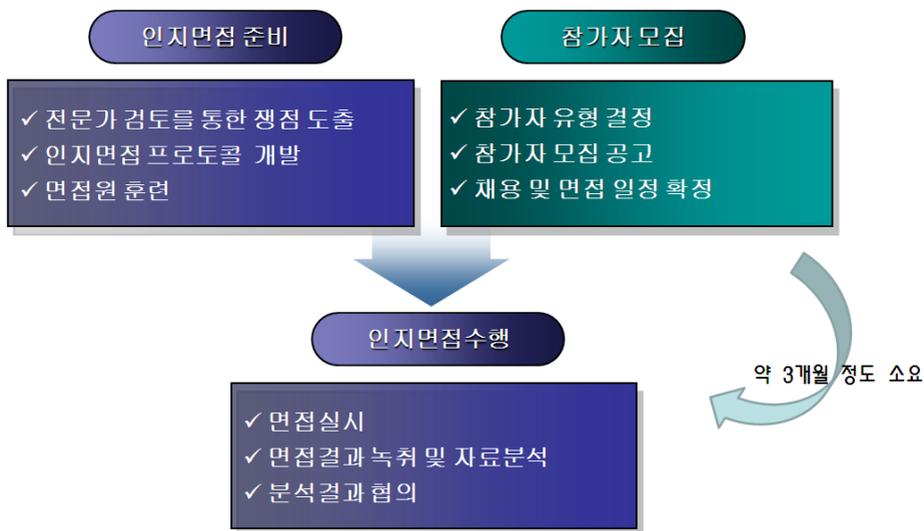
3) 1980년대 초 조사방법론 영역에 등장한 인지적인 접근법(cognitive perspective)은 조사표 설계 분야에서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틀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질문이해(comprehension)→정보인출(retrieval)→판단및추정(judgement and estimation)→응답보고(reporting)의 네 단계를 거쳐 응답을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인지면접 방법론이 개발되었다(Tourangeau, 2000).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지면접은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방법론으로 조사실무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오차의 원천을 응답자로부터 직접 발견함으로써 조사표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의의이다.

## 2. 연구 내용 및 절차

이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인지면접 테스트 절차 및 그 분석 결과와 아울러, 향후 인지면접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제안점 등을 다루고 있다. 인지면접은 [그림 2-1]과 같은 흐름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2010년 조사표에 대한 문헌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인지적인 쟁점(issues)이 예상되는 항목들을 대상으로 인지면접 프로토콜(protocol)을 개발하였다. 인지면접 참가자는 홈페이지 및 베타시장 등을 통한 자발적 지원자 가운데 다양한 특성이 고루 반영되도록 선정하였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인지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인지면접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개선안을 제언했다. 인지면접 전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동일한 절차를 걸쳐서 2라운드(round)를 실시하였다.



[그림 2-1] 인지면접 실시 흐름도

## 제2절 연구방법론

### 1. 인지면접 실시 목적

인지면접은 2010년까지 사용되어온 종이조사표에서 응답자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식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둘째 이를 통해 조사자와 응답자 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개념과 용어 등을 식별하고, 셋째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라운드를 통해 주요 용어 및 전반적 이해 문제를 진단 후 항목을 수정하였으며, 2라운드에서는 수정된 조사항목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라운드에 걸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대한 인지면접은 대전과 서울에서 총 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2. 인지면접 프로토콜 작성<sup>4)</sup>

#### • 인지면접 대상 항목 선정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표 설계를 위한 인지면접 대상 항목은 최근 3회(2010, 2005, 2000) 동안 실시된 표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묻어진 핵심 항목 중 관련 문헌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인지적 쟁점이 예상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표 2-1> 참고).<sup>5)</sup> 인구부문에서는 나이·가구주와의 관계·혼인상태·총출생아수·5년 전 거주지·통근(학) 여부 및 소요시간 항목을, 가구 및 주택부문에서는 가구구분·사용방수 및 총방수·영업겸용·주거용 및 대지면적·주거시설수 항목이 그 대상이다. 이 중 가구구분은 인구주택총조사 핵심항목은 아니나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의 내용 검토를 위한 확인 항목으로 지속적으로 묻어지고 있다.

#### • 프로빙 지침서 개발

인지면접 지침서 작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각각의 항목에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를 도출하였다. 응답과정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인지적 모델은 질문이해 → 정보인

4) 인지면접 프로토콜 작성 및 결과분석 등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신 박현주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5) 종사상 지위·산업·직업 등 경제활동상태 항목 또한 지속적으로 묻어지고 있는 핵심항목이나, 연구기간 및 인지면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로 미루었다.



출 → 판단추정 → 응답보고의 네 단계이며 각 단계에서 응답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이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해당 질문의 응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인 문제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인지면접 기법을 적용하였다. 질문에 대한 이해를 캐어묻는 프로빙(probing) 기법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 생각발화(think aloud) 및 비네트(vignett) 기법 등을 혼용하여 작성하였다.<sup>6)</sup> 수정된 항목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는 가능한 동일한 지침서를 사용하되, 개선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프로빙 질문을 만들었다. 프로빙 지침서를 포함하여 인지면접 전 과정에 대한 로지스틱(logistics)을 담고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 3. 참가자 채용

인지면접 참가자는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참가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라운드에서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3일~4월 3일 동안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공고문에는 인지면접<sup>7)</sup> 소개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전선별(screening)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사례비(incentive)가 지급됨을 밝혔다.<sup>8)</sup> 사전선별 질문으로 참가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거유형 등을 물었다.

2라운드에서도 전반적으로 동일한 양식에 따라서 5월 1일~10일간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단, 1라운드 인지면접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파악되어 몇 가지 측면에서 참가자 모집 설계를 변경하였다. 첫째, 1라운드 지원자 전체의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 50세 미만이며 자가 소유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한정해서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가구의 지원이 제한된 것,

6) 프로빙 등 인지면접의 구체적인 기법 등에 대해서는 박영실·박현정 (2012)을 참고할 것. 질문에 대한 자신의 사고과정을 풀어서 설명하는 생각발화기법의 경우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Pruffer와 Rexrodt(2005)에 따르면 미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이 방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Eurostat, 2006에서 재인용).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경험적인 근거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역시 응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서 프로빙 기법을 중심으로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7) 인지면접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인지면접 대신 심층면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8) 미국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는 인지면접 참가비를 40달러로 정하고 있다(박영실·박현정,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면접 사례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나, 일반 리서치기관에서 1시간 정도의 포커스 그룹을 실시할 경우 5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이 연구를 위한 인지면접 소요시간을 1시간가량으로 예상하였으며 전체 면접시간에서 조사표 작성시간 10~20분 정도를 고려하여 인지면접 사례비로 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1〉 인지면접 대상 항목 및 예상 쟁점, 프로빙 지침 예시

항목	예상 쟁점	프로빙 지침 예시
나이	만나이와 세는 나이 구별, 주민등록생년월일 민감도	집에서 세는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개념, 가구주와 가구원간 관계 파악의 어려움	000님이 생각하신 가구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말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혼인상태	동거 및 별거에 대한 조사자와 응답자간 이해 차이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어디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출생아수	미혼자에 대한 출생아수 항목의 민감도	00 명이라고 응답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숫자입니까? 응답을 하는데 애매한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 응답하는데 꺼려지거나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5년 전 거주지	기억의 용이성, 시군구 개념	5년 전에 어디에서 살았는지 기억해내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혹시 5년 전 주소를 ‘읍면동’ 수준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해주십시오.
통근(학)여부 및 소요시간	통근통학 여부 정의 및 소요 시간 계산 방법, 평소 개념	000님이 생각하는 평소란 언제를 의미하니까? 000님이 이 응답을 할 때 기준으로 잡은 기간은 언제입니까?
가구구분	가족 개념, 질문 이해	가족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응답범주 ②번에 있는 가족이외의 사람은 누구를 뜻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용방수	식사용 방 개념	방, 거실, 식사용 방 각각의 의미를 000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업겸용	영업겸용 개념, 질문 이해	주거전용과 영업겸용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000님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주거용 및 대지 면적	응답 내용의 정확성	이 응답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에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총방수	가구와 주택의 개념적 구분	(앞의 사용방수와 차이를 보인다면) 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앞의 사용방수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은 없습니까?
주거시설수	응답 내용의 정확성	본인의 응답이 정확하다는 것에 얼마나 확신하니까?



평소 통계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갖고 있는 자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한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구 및 주택 항목의 이해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라운드에서는 고연령층·전월세 거주자·아파트 이외 거처 거주자 등 상대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계층에 방점을 두어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모집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함께 베틀시장에 공고하였다.<sup>9)</sup>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사전선별 질문지를 파일로 첨부하여 지원자가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도록 하였는데, 베틀시장의 경우 문의를 해 오는 지원자에 한해 전화로 사전선별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둘째, 1라운드 인지면접 참가자 중 2명이 통계청 업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의 경우 조사표에 대한 자신의 의견보다는 당시 조사 경험을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인지면접의 순수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라운드 사전선별 질문에 주요 특성 이외에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업무 경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모집 경로로 베틀시장을 선택한 것은 조사취약계층의 모집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는 조사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모집한다는 문구가, 베틀시장에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자격제한 없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비해 베틀시장 지원자 중에서 조사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았다.<sup>10)</sup> 다음의 <표 2-2>는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선정된 인지면접 참가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1라운드에서는 총 49명 지원자 중 15명을, 2라운드에서는 총 69명 지원자 중 14명을 선정하였으며, 1라운드에 비해 2라운드에서 50대 이상, 고졸 이하, 이혼 및 사별, 전월세, 단독 및 연립주택 거주자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9) 베틀시장 공고 시에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홈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을 공고문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계개발원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항목 개선을 위한 심층면접을 실시합니다. 자격제한 없음 (3만원 지급) ☎ 000-000-0000’

10) 2라운드 총 69명 지원자 중 인터넷을 통한 지원자가 36명, 베틀시장을 통한 지원자가 33명이었는데 각 매체 내에서 50대 이상 비율은 홈페이지 19.4%(7명), 베틀시장 45.5%(15명), 고졸이하의 비율은 홈페이지 36.1%(13명), 베틀시장 81.8%(27명), 단독 및 연립 다세대 거주 비율은 홈페이지 33.3%(12명), 베틀시장 60.6%(20명), 자가 소유가 아닌 비율은 홈페이지 41.7%(15명), 베틀시장 57.6%(19명)으로 나타났다.

〈표 2-2〉 1라운드와 2라운드 인지면접 참가자 특성 분포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택소유		거처유형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미혼	기혼	이혼	사별	자가	전월세	단독 등	아파트
1R	15명	4	11	3	3	6	3	5	10	12	3	-	-	11	4	5	10
2R	14명	7	7	2	2	4	6	8	6	5	4	1	4	6	8	9	5

#### 4. 면접원 훈련

인지면접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면접진행절차 및 면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이 연구의 목적 및 조사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개발원 연구진과 인구총조사과 실무진이 직접 수행하였다. 따라서 교육 시에 인구주택총조사 소개는 제외하였으며, 인지면접 프로빙 질문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은 3명의 면접원과 2명의 기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면접원과 기록자 2인 1조로 진행되었다. 면접원은 프로빙 등 면접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기록자는 주요 면접 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기록과 녹음 등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참가자의 행동 등을 관찰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동의서 작성 및 사례비 지급 등과 같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보조하였다. 면접원 1인당 1일 3건 정도의 인지면접을 수행하였다.

#### 5. 인지면접 실시

1라운드는 대전에서 2012년 4월 12·13·16·17일 4일간, 2라운드는 서울과 대전에서 6월 12·13·16·17일 4일간 실시되었다.<sup>11)</sup>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를 완성하게 한 후 완료한 질문에 대해 프로빙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조사원 면접용 조사표를 응답자 기입 방법으로 수행할 경우, 조사원 없이 응답자가 얼마나 조사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표 작성 중간 중간에 참가자가 조사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면접원이 설명을 해 줄 경우 이후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은 평균적으로

11) 1라운드와 달리 2라운드에서는 3명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참가자의 불가피한 개인적인 상황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모집기간과 실제 면접기간의 차이가 벌어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40~50분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발화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sup>12)</sup>

### • 면접안내

참가자가 면접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인지면접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가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면접과정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강조하였다. 면접과정은 자료 분석의 목적으로 녹음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전에 참가자에게 녹음 및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sup>13)</sup>

### • 면접수행

응답자에게 먼저 자기기입식으로 2012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를 작성토록 하였다. 1라운드 인지면접을 위한 조사표로는 2010년 조사표를 안으로 2012년에 맞게 준거기간 등을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모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인지면접 대상 항목이 아닌 경우 참가자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응답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는 인지면접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라운드는 1라운드 인지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조사표를 이용하였다. 작성 완료 후 인지면접 대상 질문으로 돌아가 프로빙 등을 실시하였다. 모든 면접과정이 녹음되었으나, 응답자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표현을 어려워하는 것 등은 무엇인지 혹은 응답자가 빈칸으로 남겨두는 항목 등은 없는지 등 녹음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기록하도록 하였다.

### • 녹취 및 자료분석

인지면접 완료 직후 면접원으로부터 관찰 상황을 정리한 요약보고서(summary report)를 받았으며 이와 함께 면접원 보고(debriefing)를 통해 인지면접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후 녹음된 인지면접 과정을 녹취하여 질문별로 면접 결과 자료를 구축하였다. 질문별 그리고 응답자 특성별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응답자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록 발견빈도수는 낮을지라도 조사표 설계상 주요한 논리적 오류 등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Willis, 1999). 최종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12) 인지면접은 1시간 정도가 적당하며 1시간 반을 넘어갈 경우, 응답자가 피로감을 호소하여(fatigue effect) 인지면접의 효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Willis, 1999).  
13) 인지면접 안내문 및 동의서 양식은 부록을 참고할 것

## 제3절 분석 결과

이번 절에서는 29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면접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인구, 가구 및 주택부문 순으로 조사 정의 → 항목 워딩 → 인지면접 내용 → 항목 수정안 제안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인지면접 과정 관찰을 통해 드러난 전반적인 조사표 디자인 (design) 관련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 1. 인구부문

#### 가. 나이

##### • 조사 목적 및 작성 지침

나이는 성별과 함께 인구구조 분석, 장래인구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타 항목과 연계되어 많이 분석되는 항목이다. 출생일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시점 사이의 간격으로 정의되며, 출생년월일을 조사하거나 직접적으로 나이를 묻는 방법으로 측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집에서 세는 나이 → 출생년월일 → 양력 및 음력 여부 순으로 묻고 있으며, 공표 시에는 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나이를 계산하여 사용한다.

〈표 2-3〉 나이 항목 워딩

1라운드 안	2라운드 안	수정안 제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3</b> 나 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살</p> <p>집에서 세는 나이는 맞습니까? <input type="checkbox"/></p> <p>실제 생년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으로 언제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type="checkbox"/> 음력 <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2</b> 집에서 세는 실제 생년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으로 언제입니까?</p> <p>① 양력    ② 음력</p> <p><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b>2-1</b> 집에서 세는 나이로 몇 살입니까?</p> <p><input type="text"/> 살</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2</b> 주민등록상으로 생년월일과 세는 나이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p> <p><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 <input type="text"/>일</p> <p><input type="text"/>살</p> </div>

##### • 인지면접 내용

나이는 다른 어떠한 항목에 비해 일견 명확해 보이나 응답자마다 계산방법이 달라 그 응답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집에서 세는 나이와 주민등록상 세는 나이가 다르다. 세는 나이는 다시 만나이와 혼돈의 여지가 있다. 전통적인 방법에



서는 태어날 때부터 1세이지만, 서양식 방법에서는 12개월이 지나야 1세가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후자를 만나이로 명명하고 있다. 양력과 음력이라는 두 가지 달력 시스템 또한 나이를 계산하는 데 혼란을 주는 원인 중 하나이다.

1라운드에서는 현재 질문에서 나이를 계산하는데 혼동되지 않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참가자들 모두 집에서 실제 세는 나이를 주민등록상의 나이·만나이와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 세는 나이는 “생일하고 상관하지 않고 해가 바뀌면 무조건 생일이 지났거나 안 지났거나 같이 올라가는 거”, “올해년도에서 태어난 년도 숫자를 뺀 다음에 1을 더한 숫자”로, 만 나이는 “만 으로 할 때는 본 나이보다 한 살 적게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한 40대 대졸 여성은 “세는 나이는 만으로가 아니고 집에서 쓰는 나이죠”라고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표 작성 시에는 만나이를 기입하였다.

(면접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65년생이면 세는 나이가..

(참가자) 예 48이에요, 48.

(면접원) 예 47로 적으신 이유가..

(참가자) 예 여기 또 만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못 읽었던거 같아요.. 세는 나이를.. 그 뭐야 만으로 제가 이렇게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또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 중 월과 일은 동일한데 년도만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상으로 세는 나이를 계산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면접원) 혹시 주민등록 생일이랑 집에서 세는 나이랑 다른가요?

(참가자) 같아요

(면접원) 다 똑같아요?

(참가자) 네 나이는 틀려도 생일은 같아요

(면접원) 그럼 여기 년도는 조금 틀릴 수가 있다는 거네요.

(참가자) 년도는 이게 틀릴 수가 있죠.

(면접원) 원래 그럼 집에서 세는 나이로 따지면 몇 년도신가요? 생년이?

이를 고려해서 2라운드에서는 나이 질문과 생년월일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 생년월일을 먼저 묻고 나이를 묻는 방식으로 질문을 수정하였다. 생년월일은 나이와 다르게 변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돈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UN, 2008)에서는 나이를 직접적으로 묻는 방법은 응답자가 정확

한 생년월일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2라운드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바로 나이가 떠오르는지 혹은 생년월일을 통해서 나이를 계산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10명 중에 6명이 생년월일이 나이보다 먼저 떠오른다고 응답하였다.

주민등록 생일과 실제 생년월일과의 구분도 애매한 점이 있다. 질문에서는 주민등록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생년월일을 묻고 있는데 이는 고연령층 코호트에서 유아 사망율이 높아 출생신고를 늦게 했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주민등록과 실제 세는 나이의 일치율이 높아지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화되어 향후 주민등록과 실제 세는 생년월일의 일치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장기적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묻는 것이 혼돈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질문의 워딩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생년월일의 실제라는 말은 사실을 뜻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응답자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또한 실제일 수 있다. 인지면접 사례에서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다음의 두 사례는 각각 40대 대졸 여성과 50대 대학원 졸 남성의 면접 내용으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혼돈이 쉽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면접원) 저희가 근데 실제 생년월일을 써달라고 말씀은..

(참가자) 예 실제로는 61년 8월 4일이 맞습니다.

(면접원) 실제로는 그런데 주민등록이나 이쪽에서는 62년으로 되어 있다가요?

(참가자) 예예.

(면접원) 근데 왜 굳이 62년으로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참가자) 그냥 저 늘..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 외울 때 6208 이렇게 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이대로 늘 그대로 항상 돼 있으니까..

(참가자) 우리 집 사람이 호적이 잘못 돼 가지고 호적이 64년생으로 돼 있죠..

(면접원) 실제로는 어떻게?

(참가자) 실제로는 62년생이에요

(면접원) ....

(참가자) 우리 집사람은 항상 64년생이라고 그래요. 젊어보이려고.

(면접원) 아 그러세요

(참가자) ... 사람들한테 항상 네 살 차이 난다고 해요. 습관이 돼 가지고..



두 가지 사례 모두 자신의 배우자 출생년도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 인출이 실제보다 더 쉬움을 보여준 것이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에서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1라운드에서는 15명 중 10명이, 2라운드에서는 14명 중 11명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물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주민등록은 항상 외우고 있으므로 무의식적으로 말하게 된다”, “어딜가도 다 주민등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뒷번호가 아닌, 생년월일까지는 상관이 없다” “국가에서 물어보는 거니 등록되어 있는 걸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다”, “모든 집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많이 사용하니깐.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다.

#### • 제언

당초 인지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묻고 집에서 세는 나이와 양력 및 음력은 묻지 않는 것을 제언하였으나, 실무과와의 협의 결과 응답자가 다른 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알기는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나이 질문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나이의 경우에도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주민등록상으로 계산되는 세는 나이를 물었다.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실제 생년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으로 언제입니까?”라는 기존의 질문을 “주민등록상으로 생년월일과 세는 나이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로 변경하였다. 생년월일과 나이에 ‘주민등록상’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응답 시 혼란을 줄여주는 동시에 2015년 전수조사가 등록센서스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자료 연계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 나. 가구주와의 관계

#### • 조사 목적 및 작성 지침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 및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항목이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선정한 후 이를 중심으로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인구주택국세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사가 시작된 1960년 이래 지속적으로 물어져온 항목이며, 단 시점에 따라 응답범주 내 변화가 있었다.

〈표 2-4〉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 워딩

1라운드 안	2라운드 안	수정안 제안
<p><b>4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b></p> <p>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는 세대주와 친제일시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가구주를 기준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용 <b>중립성</b> 표시합니다.                      * ①~⑩는 가구주와 배우자 양쪽 다 해당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구주</li> <li>② 가구주의 배우자</li> <li>③ 자녀</li> <li>④ 자녀의 배우자</li> <li>⑤ 가구주의 부모</li> <li>⑥ 배우자의 부모</li> <li>⑦ 손녀나, 그 배우자</li> <li>⑧ 증손녀나, 그 배우자</li> <li>⑨ 형제자매, 그 배우자</li> <li>⑩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li> <li>⑪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li> <li>⑫ 기타 친·인척</li> <li>⑬ 그 외 같이 사는 사람(공동인, 하숙인등)</li> </ul>	<p><b>3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b></p> <p>* 가구주란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①~⑩는 가구주와 배우자 양쪽 다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구주</li> <li>② 가구주의 배우자</li> <li>③ 자녀</li> <li>④ 자녀의 배우자</li> <li>⑤ 가구주의 부모</li> <li>⑥ 배우자의 부모</li> <li>⑦ 손녀나, 그 배우자</li> <li>⑧ 증손녀나, 그 배우자</li> <li>⑨ 조부모</li> <li>⑩ 형제자매, 그 배우자</li> <li>⑪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li> <li>⑫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li> <li>⑬ 기타 친·인척</li> <li>⑭ 그 외 같이 사는 사람(공동인, 하숙인등)</li> </ul>	<p><b>3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b></p> <p>* 가구주란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①~⑩는 가구주와 배우자 양쪽 다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구주</li> <li>② 가구주의 배우자</li> <li>③ 자녀</li> <li>④ 자녀의 배우자</li> <li>⑤ 가구주의 부모</li> <li>⑥ 배우자의 부모</li> <li>⑦ 손녀나, 그 배우자</li> <li>⑧ 증손녀나, 그 배우자</li> <li>⑨ 조부모</li> <li>⑩ 형제자매, 그 배우자</li> <li>⑪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li> <li>⑫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li> <li>⑬ 기타 친·인척</li> <li>⑭ 그 외 같이 사는 사람(공동인, 하숙인등)</li> </ul>

• 인지면접 내용

이 항목에서는 가구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가구주와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먼저, 참가자 본인의 말로 개념을 다시 설명해 달라는 바꾸어 말하기 기법을 통해 가구주 개념을 진단해 보았는데, “가구주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본다”, “세대주 혹은 주택명의로”로 보는 경우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15명 중 10명). “가구의 주인, 대표자, 책임자” 등으로 설명함으로써 조사 지침서 상의 정의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과 비교적 유사하게 정의를 내린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sup>14)</sup> 흥미롭게도 세대주라는 응답 이외에 가구주는 “남자”라고 명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남성 참가자와 여성 참가자 모두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

(50대 남, 취업자) 남자가 있으면 남자를 가구주로 생각하고, 남편이 없으면 엄마(아내)를 가구주로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남자중심주의니까 그리 생각을 하죠

(30대 여, 주부) 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글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렇지 않나요? 세대주가 아빠(남편)로 되어 있으니깐..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가구주하면 아빠(남편)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위와 같이 남자를 가구주라고 응답한 가구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남자가 가구주일 가능성이 높으나, 여전히 응답자들 가운데에는 가부장적 사고에 따라 가구주=남자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family households)에서 전통적으로 권위와 경제적인 부양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14) 조사 지침서 상의 정의와 유사하게 응답한 5명 중 2명이 기존에 인구주택총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로 정의되며 이들이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가구 권위 및 경제적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에 이러한 가구주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특히 남성 성인이 있는 가구에서 여성이 가구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현상을 왜곡하는 것이다(UN,2008). 한편, 가구주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참가자들의 어려움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인지면접 참가자 대부분이 가족 가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에 속해 있으며 게다가 그 구성형태의 상당수가 부모-자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 • 제언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인지면접을 실시해 본 결과 조사자와 참가자 간 가구주 개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가구주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통계청에서 가구주 개념은 가구 조사 전체의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에 대해 향후 수정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응답자를 중심으로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를 파악한 후 모든 가구원 중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가구원이 누구입니까?'라고 묻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가구주 개념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가구주가 아닌 첫 번째 가구원을 준거인(reference person)으로 선정한 후 이 가구원과 다른 가구원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지역사회조사(2012)에서 준거인은 일반적으로 주택 명의자 혹은 가구 내 성인 중 한 명이 된다.<sup>15)</sup> 한편, 지시문 중 '가구주를 기준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해당하는 곳에 한 곳에만 표시합니다'라는 내용은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라는 질문과 중복되는 것으로 수정안에서는 삭제하였다.

## 다. 혼인상태

### • 조사목적 및 작성지침

혼인상태는 장래가구추계 및 출산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법적인 상태와 관계 없이 실제 혼인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1955년 이래 전수항목으로써 미혼·배우자있음·이혼·사별의 네 가지 응답범주 변경 없이 묻고 있다.

15) 미국지역사회조사에서 준거인에 대한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Person 1 is the person living or staying here in whose name this house or apartment is owned, being bought, or rented. If there is no such person, start with the name of any adult living or staying here (ACS, 2012).

〈표 2-5〉 혼인상태 항목 워딩

1라운드 안	2라운드 안	수정안 제언
<p>2) 혼인 상태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기합니다.</p>	<p>10 이 분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시</p> <p>① 미혼 ⇄ 11번으로 ②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p>	<p>19 이 분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시</p> <p>① 미혼 ⇄ 20번으로 ②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p>

• 인지면접 내용

미혼·배우자 있음·사별·이혼의 네 가지 응답범주 외에 동거나 별거와 같은 혼인형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이연주, 2008). 동거와 별거는 기존의 응답범주로는 정의되지 않는 혼인의 형태를 포착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되, 특히 ‘이혼신고는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별거는 이혼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법적인 상태와 실제 상태 간 차이가 있는 혼인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과연 응답자들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응답을 할까? 동거는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사실혼 형태로 볼 수 있으며,<sup>16)</sup> 별거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나 사실적으로 이혼의사를 갖고 배우자와 떨어져 살 가능성이 있는 형태이다. 비네트 기법을 적용하여 인지면접을 실시한 결과, 동거와 별거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이 조사 지침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거의 경우 절반의 참가자가 ‘미혼’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배우자 있음’에 응답해야 한다고 한 반면, 별거의 경우 대다수가 ‘배우자 있음’에 응답해야 한다고 하였다. 별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적인 상태를 판단근거로 삼고 있어서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묻는 질문의도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별거는 떨어져 살 뿐이지 법적으로 이혼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있음이죠”라고 답했으며, 특히 일부 참가자는 “통계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것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거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인식에 따라서 달라졌다. “미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서류상 아직 안되어 있으니깐...”라고 보는 참가자도 있고 “사실혼도 혼인관계 아닐까요? 배우자 있음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보는 참가자도 있

16) 이연주(2008)는 동거를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가 있는 두 남녀가 공동의 주거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동거지속기간이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가 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에 따라서 동거의 내용적 측면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었다. 한 참가자는 동거의 경우 동거의 내용적인 측면에 따라서 사실혼 관계로 보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보는 바와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을 때는 부부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라고 응답한 것과 같이 자녀 유무에 따라서 배우자 있음과 미혼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동거 및 별거 범주 추가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의 민감성 때문에 지금껏 논쟁적인 측면이 있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이 이웃주민인 경우가 많으므로 응답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조사원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2라운드에서 동거나 별거 응답범주를 포함할 시 응답자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는데 동거 및 별거 범주가 있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경우가 11명 중 7명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것이라고 예상된 고령층에서 동거 및 별거에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sup>17)</sup>

(50대 여) 여기에 만일 이게 없는데 별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없다면 어디다가 표시를 하겠어요?

(60대 여) 내가 보기에 여기서 뭐 죄지은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나는 글썽 모르겠네. 이혼이나 별거 같은 거는 내 기준으로 보면 통계청에서 물어볼 때는 사실대로 이야기할 해야 할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응답할 거 같어.

## • 제언

동거 및 별거 등과 같은 다양한 혼인형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과의 동의에 따라 질문은 그대로 유지하되 응답범주에 동거와 별거를 추가하는 것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안하였다. 단 동거의 경우 응답자들마다 인식 차이가 있어서 배우자 있음 옆에 괄호로 ‘동거포함’으로, 별거는 대부분의 참가자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우자 있음에 응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독립적인 범주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인지면접이 실험실에서 자발적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조사자의 의도한 바대로 바람직한 응답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물론 실제 조사현장에서 동거 및 별거 범주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나, 동거 및 별거 범주는 민간조사기관에서는 혼인상태의 응답범주로 이미 채택되어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2003년 조사 시작부터 별거 범주를 묻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동거를 추가하였다. 2010년 자료에 의하면 별거 0.6%, 동거 0.8%로 나타났다. 공식통계에서 또한 혼외출생아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혼인형태의 다양성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동거를 배우자 있음과 미혼 중 어디에 응답할 지에

17) 1라운드에서 50대 남성 참가자는 동거에 대해서 “젊은 애들은 (응답)할 거예요. ....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숨기는 게...”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은 동거가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라. 총출생아수

### • 조사목적 및 작성지침

총출생아수는 출산력 조사의 기본항목으로 출산수준 및 출산행태변화 분석에 필요한 항목이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유산이나 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생애 총 출산 자녀수에 대한 기억의 회상을 돕기 위해 생애 총 출산 자녀수 → 센서스 시점 생존자녀수 → 센서스 직전 사망자녀수 순으로 묻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중 생존 자녀수와 사망 자녀수는 총 출산 자녀수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다 (United Nations, 2008).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묻어지고 있는 이 항목의 경우 총 출산 자녀수, 생존 자녀수, 사망 자녀수가 시점에 따라 달리 묻어지고 있으나, 2000년에는 총출생아수만, 2005년과 2010년에는 총출생아수와 사망자녀수가 물어졌다.

〈표 2-6〉 총출생아수 항목 워딩

1라운드 안	2라운드 안	수정안 제언
<p>기혼(배우가 있음) 시점 이전 여성만 기입합니다. [ 26 ~ 27 ]</p> <p><b>26</b> 총 출생 아 수</p> <p>지금까지 낳은 자식은 모두 몇 명입니까?  <small>• 직물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기입합니다.                      • 미혼여성도 출산한 경우도 포함합니다.</small></p> <p>남 <input type="text"/> 명, 여 <input type="text"/> 명</p> <p>지금까지 낳은 자녀 중에서 사망한 자식은 몇 명입니까?                      남 <input type="text"/> 명, 여 <input type="text"/> 명</p>	<p><b>11</b> (여성 가구원만 응답, 남성 가구원일 경우 <b>13</b>번으로 이동)</p> <p>지금까지 모두 몇 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까?</p> <p>① 없음 ⇨ 12번으로                      ② 남 <input type="text"/> 명, 여 <input type="text"/> 명</p>	<p><b>20</b> (여성만 응답, 남성은 <b>22</b>번으로 이동)</p> <p>지금까지 모두 몇 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까?</p> <p>① 남 <input type="text"/> 명, 여 <input type="text"/> 명                      ② 없음 ⇨ 21번으로</p>

### • 인지면접 내용

유엔에서는 만15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 대해 총 출산자녀수를 묻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사회의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미혼 여성에게 출산경험을 묻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혼 여성을 응답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혼외출생아수가 증가하는 최근 미혼 여성의 출산이 주목되면서 자구책으로 ‘미혼여성이 출산한 자녀도 포함합니다’라는 지시문을 포함했으며, 조사지침서에는 ‘추후 내용 검토 시 확인이 어려우므로 조사표 표지의 비고란에 미혼모임을 기입’하라는 지침을 두었다. 응답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나 조사표 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2라운드에서는 16세 이상 여성 전체로 응답대상자를 확장하는 대신 응답범주에 없음을 추가한 후, 실제 미혼자녀에게 출산자녀를 묻는 것이 거부감이



### • 인지면접 내용

5년 전 거주지 항목에서 도출된 인지적인 쟁점은 첫째 5년 전 거주지에 대한 기억의 용이성, 둘째 시군구 개념에 대한 조사자와 응답자 간 이해 차이 가능성이다. 인지면접 결과, 5년 전에 어디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참가자들이 어려움 없이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이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8)</sup> 그런데, 5년 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5년 전 주소지를 응답할 때 응답범주 ③번의 ‘시군구내 다른 집’과 ④번의 ‘다른 시군구’ 의 두 범주 사이에서 참가자가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참가자들은 광역시의 구와 일반시의 구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용인시 ‘팔달구’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광역시인 대전에서 구를 이동한 경우 ④번인 다른 시군구로 응답한 후 구체적인 주소를 기입하여야 하나, ③번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이라고 응답한다거나 반대로 일반시인 청주에서 구를 이동한 경우 ③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이라고 응답해야 하나 ④다른 시군구로 응답한 경우 등이 발생하였다.

(면접원)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하셨나요? 5년 전에?

(참가자) 그 전에 살던 집이 대덕구 비래동이었구요.

(면접원) 네.

(참가자) 현재 살고 있는 데가 동구 원동이에요.

(면접원) 아 그런데 여기는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니까 같은 시라는 게 대전시?

(참가자) 네

1라운드 인지면접 결과에 따라서 2라운드에서는 5년 전 거주지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경우 주소를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안으로 조사표를 수정하였다. 즉, 1라운드의 ③④번을 합쳐서 2라운드에서는 한국 내 다른 주소라는 응답범주로 통합하였다. 같은 시군구내에서 이동한 경우도 응답자들이 직접 주소를 기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나, 응답오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수정하였다. 그런데, 2라운드에서는 5년 전 거주지 정보인출과정에서 ‘구’ 보다는 ‘동’이 효율적인 단서(que)임이 진단되었다. 인지면접 관찰 과정에서 5년 전 거주지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동은 알겠는데 구가 잘 안 떠오른다”는 응답이 있었다.

18) 또한 1라운드 참여자들의 자가 소유 비중이 높은 것도 한 원인으로 보여진다.



(참가자) 구하고 동하고 헛갈렸어요. 금천군데 시흥동으로 썼거든요. 금천구 시흥동이었어요.  
 (면접원) 만약 저희가 읍면동까지 응답해달라고 말씀드릴 경우에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  
 다는 말씀이신가요?  
 (참가자) 네.

### • 제언

두 차례의 인지면접을 통해서 5년 전 거주지 항목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객관식 응답범주에서 읍면동 수준으로 이동한 경우를 포착하도록 하고, 읍면동을 이동한 경우에 한해 구체적으로 주소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주관식 주소 기입란은 시군구까지 적게 되었던 1라운드 버전에서 읍면동까지 적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읍면동까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응답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오히려 응답부담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 첫째, ‘구’는 기억하지 못하되 ‘동’은 기억하는 응답자에게 응답의 용이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동’까지 제공된 정보는 좀 더 작은 단위에서의 인구이동 정보를 제공해 준다.<sup>19)</sup> 물론 구는 기억하는데 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응답자들이 읍면동 수준의 응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라운드에서는 질문 도입부에 집에서 세는 나이 6세부터 기입하라는 지시문이 있으나, 이는 응답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태어나지 않았음’과 동일한 내용으로 ‘집에서 세는 나이 6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라는 지시문을 삭제하였다.<sup>20)</sup> 1년 전 거주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 바. 통근(학)여부 및 소요시간

### • 조사 목적 및 작성 지침

통근통학은 인구이동량을 분석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 19) 통계청은 인구이동자의 개념을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이동한 인구로 정의함으로써 읍면동 단위의 자료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동자를 현재의 집이 아닌 다른 집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소지역 단위의 인구이동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공간단위별로 인구이동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최은영·조순기·박영실, 2008). 실무부서와의 업무협의 결과, 여전히 읍면동 수준까지 응답을 얻는 것에 대한 응답부담 측면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 20) 2라운드에서는 특광역시와 구와 일반시의 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특광역시-구, 도-시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주었는데 면접과정 관찰 결과, 특광역시에 도를 기입하는 등 응답자들이 적절한 칸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통근통학은 살고 있는 거처 이외의 직장(일터, 근무지) 및 학교(학원)에 평소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을 의미하며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 이들에 한해 통근통학장소,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인지면접에서는 통근통학여부와 소요시간에 대해 테스트하였다.

〈표 2-8〉 통근(학) 여부 및 소요시간 항목 워딩

1라운드 안	2라운드 안	수정안 제언
<p><b>13</b> 통근·통학 여부</p> <p>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습니까?</p> <p>• 앞서 통근·통학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p> <p>① 동근함 ② 통학함 ③ 안함 → 10번으로</p>	<p><b>9</b>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습니까?</p> <p>① 동근함 ② 통학함 ③ 안함 ※ 10번으로</p>	<p><b>11</b>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습니까?</p> <p>• 직장과 학교(학원)에 모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에 응답</p> <p>① 동근함 ② 통학함 ③ 안함 ※ 10번으로</p>
<p><b>16</b> 통근·통학 소요 시간</p> <p>통근·통학 장소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p> <p>□ 시간 □ 분</p>	<p><b>9-3</b> 집에서 나와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p> <p>• 통근·통학 중 다른 곳을 경유할 경우, 이 시간도 포함하여 계산</p> <p>□ 시간 □ 분</p>	<p><b>11-3</b> 집에서 나와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p> <p>• 통근·통학 중간에 정기적으로 다른 곳을 경유할 경우, 이 시간도 포함하여 계산</p> <p>□ 시간 □ 분</p>

• 인지면접

[통근(학)여부] 이 질문에서 주안점은 평소에 대한 개념을 응답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와 통근과 통학을 모두 하는 응답자의 경우 어느 행동을 기준으로 응답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먼저, 평소에 대한 개념은 참가자 개인 상황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매일매일, 일주일, 6개월, 1년 등 평소를 매우 다양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직장을 다닌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명의 참가자가 자신이 통근한다고 응답해야 하는지를 혼돈스러워 하였는데, 이는 평소에 대한 준거기간을 직장을 다닌 기간과 연동하여 해석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다르죠. 평소 직장을 1년 다녔다고 하면 1년을 평소라 하고 6개월 다녔다면 6개월을 통틀어서 통근을 했다고 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학생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 등 통근과 통학을 모두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응답자는 어느 행동을 기준으로 응답을 해야 할까? 이번 인지면접에서는 통근과 통학을 모두 하는 상황을 제시한



후 어디에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 비네트 기법을 적용하여 테스트하였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 이 사람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질문한 결과, 1라운드에서는 주로 하는 것에 응답한다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동일한 지침서를 이용한 2라운드의 인지면접에서는 약 절반가량의 참가자가 통근과 통학을 모두 한다고 응답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두 라운드에서 상이한 응답경향이 나타난 것은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의 상황이 인지적인 문제로 포착될 수도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통근(학) 소요시간]** 통근(학)소요시간에 관한 질문에서는 출발점과 도착점 간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중간에 경유지가 있을 경우 참여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 다니는 어떤 사람의 경우, 집에서 학원을 들러 공부한 후 직장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집에서 학원까지는 20분, 학원에서 직장까지는 40분이 걸린다고 할 때 소요시간을 얼마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하였을 경우, 경유지를 포함해서 소요시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응답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야 한다는 응답이 반반 정도로 나뉘었다. 이는 시간계산 방법에 있어서 응답자에게 구체적인 기준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 제언

직장과 학교에 모두 다니는 경우 어느 행동을 기준으로 응답할 지에 대해서 응답자간 인식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 통근(학) 여부 항목에 ‘직장과 학교(학원)에 모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에 응답’하라는 지시문을 추가하였다. 통근(학) 소요시간 항목에서는 먼저 출발점과 도착점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다. 기존 항목에서는 ‘통근 통학장소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로 출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를 보완해서 ‘집에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통근통학 중간에 정기적으로 다른 곳을 경유할 경우, 이 시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라는 지시문을 포함하였다.

한편, 통근(학)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필요함이 진단되었다. 참가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평소’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혹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등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응답자는 통근(학)을 하는 것으로, 다른 응답자는 통근(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이번 연구에서 평소의 준거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다음의 외국 센서스 조사표를 참고해볼 만하다. 미국(2012)과 영국(2011), 헝가리(2011) 등은 경제활동상태 항목과 연동하여 취업자에 한해서 통근 소요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가 하면, 스위스(2010)는 임금근로자(employed persons and apprentices)와 학생(school children, students, and apprentices)에게 독립적으로 통근(학) 소요시간 및 이동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sup>22)</sup>

## 2. 가구 및 주택 부문

### 가. 가구구분

#### • 조사목적 및 작성지침

가구구분 항목은 일반가구, 집단가구 등을 구분하여 가족 및 인구구조 분석을 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을 통해서 파생가능한(derived) 변수이기는 하나, 이 항목을 통해 역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을 확인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하다.

〈표 2-9〉 가구구분 항목 워딩

1라운드 안	2라운드 안	수정안 제언
<p><b>29</b> 가구 구분</p> <p>이 가구는 아래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p> <p>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③ 1인 가구                  ④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⑤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p>	<p><b>15</b> 이 가구는 아래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p> <p>① 가족(친인척 포함)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친인척 포함)과 그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③ 1인 가구                  ④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⑤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p>	<p><b>24</b> 이 가구는 아래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p> <p>①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과 남이 함께 사는 가구                  ③ 1인 가구                  ④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⑤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p>

#### • 인지면접 내용

가구구분 항목에서는 과연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와 조사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인지면접 결과 가족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와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정의 사이에 간극이 있음이 드

21) 조사표 내에서 통근(학) 이외 항목의 경우 준거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사회활동 항목은 지난 1년, 경제활동상태 항목은 지난 1주, 이용교통수단 항목은 최근 목요일을 준거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22) 유엔통계처의 각국 센서스 조사표 참고(<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ources/census/censusquest.htm>)



러났다.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되는 것과 달리,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에서 면접 참가자의 상당수가 가족의 범위를 부모-자녀라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한정을 짓고 있었다(1라운드, 15명 중 11명; 2라운드, 14명 중 9명).

부모하고 장인장모까지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으로 본다. 형제도 결혼했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겠죠.

친척을 어느 범주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인지면접에서 참가자들은 가족에 친척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친척을 남으로 보는 것에도 주저하였다. 기존 조사항목을 보면, ②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라는 범주가 있는데 참가자 중에서는 친척을 가족 이외의 사람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범주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은 응답범주 ④번과 ⑤번에 있는 남과 같은 의미이다. 조사자의 의도와 달리 ‘가족 이외의 사람’이 참가자에게 가족과 남의 중간범주로 해석되면서 친척을 이 범주로 편입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면접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요, 자녀가 있고, 자녀의 사촌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디에 응답을 해야 할까요?

(참가자) 부모와 가족과 사촌이요?

(면접원) 자녀의 사촌이라고 하면은 조카정도 될 수 있는 건데요.

(참가자) 아 조카요? 흠.. 조카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남남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과 가족이외의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 • 제언

인지면접 결과 첫째 가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짓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친인척을 가족과 남 사이의 중간범주로 보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응답범주 ②번에 있는 그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를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과 남이 함께 사는 가구로 수정하였다.

가족 개념에 대한 인지면접 결과는 기존의 경험적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 범주에 관한 연구를 보면 다양한 유형의 가구 구성원을 나열

한 후 해당 가구원을 가족 범주에 포함시킬지를 묻는 조사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 등을 가족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배우자의 기혼 형제자매·배우자의 조부모·그 외의 친인척 등을 가족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양옥경, 2001; 이영숙·박경란, 2002; 남기철, 2004 등).

## 나. 사용방수

### • 조사 목적 및 작성 지침

사용방수 항목은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주거의 질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활용된다. 유엔 정의에 따르면, 방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에 의해 막혀있으며 그 높이가 최소 2미터 넓이가 4제곱미터인 공간이며 여기에는 침실, 거실, 공부방 및 그 외 다른 목적의 공간 등이 포함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역시 이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단일 공간은 단일 기능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실 겸 식사용 방과 같이 한 공간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어느 한 가지 목적만을 갖는 방(여기에서는 ‘거실’)으로 기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2-10〉 사용방수 항목 워딩

1라운드 안	2라운드 안	수정안 제언
<p><b>31 사용 방수</b></p> <p>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거실, 식사용 방은 각각 몇 개입니까?</p> <p>•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2m, 넓이는 4㎡ 이상인 것을 말하며, 거실 겸 식사용 방은 거실에만 기입합니다.</p> <p>● 방 { 잠을 자는 방 <input type="checkbox"/> 개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옷방, 서재 등) <input type="checkbox"/> 개</p> <p>● 거실(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는 대청마루 포함) <input type="checkbox"/> 개</p> <p>● 식사용 방(부엌이 딸린 식사용 방 포함) <input type="checkbox"/> 개</p>	<p><b>17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거실, 식사용 방은 각각 몇 개입니까?</b></p> <p>•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있고 높이는 2미터(m), 넓이는 4제곱미터(m²) 이상인 것을 말함</p> <p>• 거실 겸 식사용 방은 거실에만 기입</p> <p>● 방 <input type="checkbox"/> 개</p> <p>● 이 중 잠을 자는 방 <input type="checkbox"/> 개</p> <p>● 거실(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있는 대청마루포함) <input type="checkbox"/> 개</p> <p>● 식사용 방(부엌이 딸린 식사용 방 포함) <input type="checkbox"/> 개</p>	<p><b>26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과 거실, 식사용 방은 각각 몇 개입니까?</b></p> <p>• 방이란 벽으로 구분된 높이 2미터(m), 넓이 4제곱미터(m²) 이상인 공간을 말함</p> <p>• 한 공간이 구분 없이 두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한 곳에만 기입(예: 거실겸 식사용방은 거실)</p> <p>● 방 { 잠을 자는 방 <input type="checkbox"/> 개 기타 용도 방(옷방, 서재 등) <input type="checkbox"/> 개</p> <p>● 거실 혹은(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힌) 대청 마루 <input type="checkbox"/> 개</p> <p>● 식사용방(식탁 등이 놓여져 식사용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input type="checkbox"/> 개</p>

### • 인지면접 내용

사용방수를 묻는 질문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식사용 방에 대한 해석문제이다. 식사용 방은 외국의 dining room과 유사한 개념인데, 외국에서 dining room과 living room의 경계가 명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조사항목의 연혁을 보더라도 dining room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주택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방’에 대한, 특히 거실과 식당 등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1990년도부터 현대식 주택의 거실과 식당을 방으로 본다는 설명이 추가되었으며, 2000년 이후 사용방수, 거실수, 식당수(식사용 방수)를 구분하여서 방수를 측정하고 있다. 식사용 방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참가자들은 이 용어를 낯설고 애매해했으며 대신 주방이라는 말을 선호하였다.

식사하는 주방 이렇게 하면은 애매하지 않겠는데.. 식사용 방이라고 그래서요. 그걸 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네요. 거실하고 싱크대 및 식탁이 있는 식사용방이 트여있더라도 각각으로 봐야죠. 기능이 다르니까.

이 식사용방이 단독주택에 있는 부엌을 말하는 건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식사용방이 대부분 따로 없을 텐데요. 거실하고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거기에도 문 열고 들어가긴 하죠 부엌에.

또한 응답자들은 거실과 식사용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각각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실과 식사용방이 트여있을 경우 2개로 기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모두 절반 정도였다. 이는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방으로 보고 있는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응답이다.

## • 제언

이 항목에서는 식사용 방을 포함한 방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다. 사용방수 항목에 대한 수정안에서는 기존 항목에서의 방의 정의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재 작성하였다. 기존에는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2m, 넓이는 4m<sup>2</sup> 이상인 것을 말하며, 거실 겸 식사용 방은 거실에만 기입합니다’ 로 두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안에 길게 있었다. 수정안에서는 ‘방이란 벽으로 구분된 높이 2미터(m), 넓이 4제곱미터(m<sup>2</sup>) 이상인 공간을 말함’과 ‘한 공간이 구분 없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한곳에만 기입(예: 거실 겸 식사용 방은 거실)’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식사용 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였다. 기존 안에는 식사용 방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지 않았으나, ‘식탁 등이 놓여져 식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 다. 영업겸용

### • 조사목적 및 작성지침

유엔에서는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지, 주거와 경제활동 둘 다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구 내 영업겸용과 주택 혹은 건물 내 영업겸용 두 가지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중 영업겸용 항목은 전자에 해당한다.<sup>23)</sup>

〈표 2-11〉 영업겸용 항목 워딩

1라운드 안	2라운드 안	수정안 제언
<p><b>39 점수 형태 40 임차료</b></p> <p>이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영업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 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집세는 얼마입니까?</p> <p>① 주거전용 ② 영업겸용</p> <p>① 자기 집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input type="text"/> 개월 ⑥ 무상(반사, 사택 등)</p> <p>전세·보증금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 원</p> <p>월세(사글세)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만 원</p>	<p><b>26</b> 이 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영업용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p> <p>① 있음      ② 없음</p>	<p><b>36</b> 이 가구가 살고 있는 집 안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p> <p>① 있음      ② 없음</p>

### • 인지면접 내용

이 항목은 당초 주거전용과 영업겸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낯설어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지면접 결과 용어 그 자체 보다 질문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 항목에서는 가구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묻는 것이나, 면접 참가자들 중에서는 가구가 아닌 주택 혹은 건물에 영업용 공간이 있는 것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1라운드에서 주거전용과 영업겸용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절반의 참가자가 상가와 주거공간이 있는 건물과 가구 내 영업겸용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영업겸용은 아래층에 상가가 있고, 뒤편 1, 2층에 상가가 있는데, 3,4층은 주택으로 투룸이나 원룸으로 되어 있는 게 영업겸용이고요 저희 같은 주거전용은 상가가 없고 전체 다 주거형태로 되어 있는 게 주거전용..

23) 주택 혹은 건물 내 영업겸용은 별도의 항목으로 측정되고 있지 않으며, 거처유형을 묻는 항목에서 조사자 혹은 응답자의 판단 하에 영업겸용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주택으로 구분되도록 하고 있다. 주택 내에 영업공간의 부분이 주거용 부분에 비해 많을 경우 비주거용으로 구분된다.



2라운드에서는 질문 워딩을 ‘이 가구가 살고 있는 집에 영업용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라고 수정하였으며, 인지면접에서는 과연 참가자들이 “1, 2층 등에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이 질문에 예라고 응답을 해야 할까요? 아니오라고 응답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상복합 건물 안의 상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sup>24)</sup> 여전히 다수의 참가자가 영업겸용이라고 응답하였다(12명 중 8명).

### • 제언

두 번의 인지면접 결과에서 드러나듯 이 항목에서 관건은 영업을 하는 공간이 가구가 거주하는 곳에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토록 하는 것이다. 이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은 주거전용인지, 영업겸용인지를 묻는 기존의 항목에서 집은 주택 전체로 확장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 대신에 집 안이라는 표현을 제언하였다.<sup>25)</sup> 집 안은 집의 내부를 의미하므로 해당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영업겸용이라는 정의를 풀어 최종적으로 ‘이 가구가 살고 있는 집 안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수정하였다.

## 라. 주거용 연면적

### • 조사 목적 및 작성 지침

각종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주거용 연면적 항목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을 기입하는 것으로 차고, 창고, 외양간이나 그 외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입하되,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 1970년도부터 묻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까지 평, 1990~2005년은 평 또는 제곱미터, 2010년에는 제곱미터로 그 단위가 변경되었다.

24) 주상복합의 경우, 해당건물을 참가자 본인이 소유했을 경우에는 영업겸용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했을 경우에는 영업겸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5) 집 안은 집안과 다르다. 집 안이 구조물의 개념이라면 집안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금 살림을 꾸려나가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다.

〈표 2-12〉 주거용 연면적 항목 워딩

1라운드 안	2라운드 안	수정안 제언
<p><b>43 주거용 연면적</b></p> <p>이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건물 연면적)은 몇 m<sup>2</sup>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에 이용하는 부분만 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li> <li>•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li> </ul> <p><input type="text"/> m<sup>2</sup> ※1평은 3.3m<sup>2</sup>입니다.</p>	<p><b>31</b> 이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건물 연면적)은 몇 제곱미터(m<sup>2</sup>)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을 기준</li> <li>•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li> </ul> <p><input type="text"/> 제곱미터(m<sup>2</sup>) ※ 1평은 3.3m<sup>2</sup></p>	<p><b>42</b> 이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건물 연면적)은 총 몇 제곱미터(m<sup>2</sup>)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함</li> <li>•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을 기준</li> <li>•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li> </ul> <p><input type="text"/> 제곱미터(m<sup>2</sup>) ※ 1평은 3.3m<sup>2</sup></p>

• 인지면접 내용

주거용 연면적 항목에서는 응답자가 해당 정보를 얼마나 잘 인출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런데, 1라운드 인지면접에서는 주거용 연면적에 응답한 경우가 12명 중 7명으로 절반 이상이였으며, 이들 중 해당 주택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쉽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쳐오면서 이 항목은 응답자들이 쉽게 정보를 인출해내지 못하는 항목 중 하나로 꼽혔던 것과 비교해본다면 이번 인지면접에서는 비교적 그 응답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라운드 참가자의 상당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자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독 및 연립주택, 전월세 거주자에 방점을 두어 참가자를 선정한 2라운드 인지면접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진단되었다. 단독 및 연립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참가자 상당수가 층별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을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26)</sup> 실제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몇몇 참가자들은 층별 주거용 연면적을 모두 합산해서 응답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온 경우가 있었다.

• 제언

인지면접 결과에 따라 주거용 연면적 항목에서는 질문과 지시문 두 가지를 수정하였다. 기존에는 ‘이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건물 연면적)은 몇 m<sup>2</sup>입니까?’로 물었던 질문을 수정안 질문에서는 m<sup>2</sup> 앞에 총(total) 이라는 수식어를 넣어주었으며, 지시문에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함’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주택 전체의 면적을 합산하라는 의미를 추가하였다. 한편, 단위 기호에 익숙치 않은 응답자를 위해 m<sup>2</sup> 단위표시를 한글로 풀어서 ‘제곱미터’로 제시하였다.

26) 1라운드 조사표에서 아파트 거주자는 주거용 연면적에 응답하지 않고 응답을 마치도록 조사표가 설계되어 있다. 단, 연구자 본인이 면접원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이와 무관하게 주거용 연면적에도 응답하라고 참가자에게 요구를 하였다.

### 마. 기타 : 총방수 및 주거시설수

#### • 총방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에는 해당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방수와 함께 해당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의 총방수 두 가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총방수는 사용방수와 최소한 같거나 커야 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런데 건물 층수, 거처 유형 등을 고려해 볼 때 총방수가 사용방수 보다 반드시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2라운드에서 14명 중 6명이 두 항목에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아파트 거주자 5명을 비대상자로 제외한다면 9명 중 6명이 사용방수와 총방수 질문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앞서 영업겸용 항목과 마찬가지로 참가자 스스로 가구와 주택 혹은 건물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표 원안에는 ‘이 주택에는 방, 거실, 식사용 방이 각각 몇 개입니까’라는 질문과 ‘세든 가구를 포함하여 주택 전체의 방수를 기입하며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도 포함됩니다’라는 지시문이 있었으나, 지시문을 질문에 포함시켜 ‘세든 가구를 포함하여 이 주택 전체에는 총 몇 개의 방과 거실, 식사용 방이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방도 포함해서 기입해 주십시오’라고 수정하였다. 한편, 방이라는 질문과 실제 응답칸과의 거리가 멀어서 참가자가 기입하는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점선으로 둘 사이를 연결시켰다.

〈표 2-13〉 총방수 항목 워딩

1라운드 안	2라운드 안	수정안 제안
<p><b>45 총방수</b></p> <p>이 주택에는 방, 거실, 식사용 방이 각각 몇개입니까?</p> <p>• 세든 가구를 포함하여 주택 전체의 방수를 기입하며,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도 포함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 <input type="text"/> 개</li> <li>• 거실(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는 대청아루 포함) <input type="text"/> 개</li> <li>• 식사용 방(부엌이 딸린 식사용 방 포함) <input type="text"/> 개</li> </ul>	<p><b>33</b> 이 주택에는 방, 거실, 식사용 방이 각각 몇 개입니까?</p> <p>• 세든 가구를 포함하여 주택 전체의 방 수를 기입하며,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 ..... <input type="text"/> 개</li> <li>• 거실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있는 대청아루포함)..... <input type="text"/> 개</li> <li>• 식사용 방(부엌이 딸린 식사용 방 포함)..... <input type="text"/> 개</li> </ul>	<p><b>40</b> 세든 가구를 포함하여 이 주택 전체에는 총 몇 개의 방과 거실, 식사용방이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방도 포함해서 기입해주시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 ..... <input type="text"/> 개</li> <li>• 거실 혹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힌) 대청아루..... <input type="text"/> 개</li> <li>• 식사용방(식탁 등이 놓여져 식사를 할수 있는 별도의 공간)..... <input type="text"/> 개</li> </ul>

#### • 주거시설수

해당 주택에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가 모두 몇 개인지를 묻는 이 항목은 개념 이해 혹은 정보 인출의 문제 보다는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라는 세 단어의 배열상의 문제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 화장실에 외부와 독립적으로 연결된 출입구가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해서 없다고 응답’하거나 혹은 ‘부엌과 화장실에 출입구가 1개씩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에 독립된 출입구를 부엌 앞으로 옮겨서 ‘이 주택 전체에는 독립된 출입구, 부엌, 화장실이 각각 몇 개입니까?’라고 질문을 수정하였다.

〈표 2-14〉 주거시설수 항목 워딩

1라운드 안	2라운드 안	수정안 제안
<p><b>47 주거 시설 수</b></p> <p>이 주택에는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가 각각 몇 개입니까?                      * 독립된 출입구는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도 포함합니다.</p> <p>● 부엌 <input type="text"/> 개</p> <p>● 화장실 <input type="text"/> 개</p> <p>● 독립된 출입구 <input type="text"/> 개</p>	<p><b>34 이 주택에는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가 각각 몇 개입니까?</b></p> <p>* 독립된 출입구는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문으로 현관문도 포함</p> <p>● 부엌 ..... <input type="text"/> 개</p> <p>● 화장실 ..... <input type="text"/> 개</p> <p>● 독립된 출입구 ..... <input type="text"/> 개</p>	<p><b>41 이 주택 전체에는 독립된 출입구, 부엌, 화장실이 각각 몇 개입니까?</b></p> <p>* 독립된 출입구는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문으로 현관문도 포함</p> <p>● 독립된 출입구 ..... <input type="text"/> 개</p> <p>● 부엌 ..... <input type="text"/> 개</p> <p>● 화장실 ..... <input type="text"/> 개</p>

### 3. 조사표 디자인 전반

인지면접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었으나, 인지면접 과정 관찰을 통해 조사표 디자인과 관련된 시사점 또한 도출되었다. 2010년 조사표는 가구원 항목, 가구 항목, 주택 항목으로 [그림 2-2]와 같이 가구원 항목은 세로 7단으로, 가구 및 주택 항목은 세로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 항목은 맨 왼쪽의 첫 번째 열에는 작성예시가, 두 번째 열에는 질문이,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열에는 5명 가구원 각각에 대한 응답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작성가능가구원수, 작성예시, 질문과 응답범주 구성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조사표 전체 디자인에 대한 수정안을 [그림 2-3]과 같이 제시하였다.

The figure shows two versions of a questionnaire for household members. The left version is the original design, and the right version is the revised design. Both are titled '가구원' (Household Members) and include a header '교육 정책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에 활용됩니다.' (Used for education policy and low birth rate/aging policy).

**Original Design (Left):**

- 작성 예시 (Writing Example):** A table with columns for '성명' (Name) and '성별' (Gender). It shows an example for '남자' (Male) and '여자' (Female) with checkboxes for '남' (Male) and '여' (Female).
- 질문 (Question):**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원(아동)을 포함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Please enter all members (children) living in this household.)
- 응답범주 (Response Categories):** A list of household members: 1. 가구주 (Head of household), 2. 가구주 배우자 (Spouse), 3. 자녀의 배우자 (Spouse of child), 4. 가구주 부모 (Parents of head of household), 5. 배우자의 부모 (Parents of spouse), 6. 손녀나 그 배우자 (Granddaughter or her spouse), 7. 장남이나 그 배우자 (Eldest son or his spouse), 8. 형제자매, 그 배우자 (Siblings or their spouses), 9.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Children of siblings or their spouses), 10.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Parents' siblings or their spouses), 11. 기타 친·인척 (Other relatives), 12. 그의/그녀의 다른 가족(다른주택에 입) (Other family members (in other housing)).

**Revised Design (Right):**

- 작성 예시 (Writing Example):** A table with columns for '성명' (Name) and '성별' (Gender). It shows an example for '남자' (Male) and '여자' (Female) with checkboxes for '남' (Male) and '여' (Female).
- 질문 (Question):** '실제 생활할 수 있는 문에 또는 문턱으로 연결되니까?' (Is it actually possible to live through the door or threshold?)
- 응답범주 (Response Categories):** A list of household members: 1. 가구주 (Head of household), 2. 가구주 배우자 (Spouse), 3. 자녀 (Child), 4. 자녀의 배우자 (Spouse of child), 5. 가구주 부모 (Parents of head of household), 6. 배우자의 부모 (Parents of spouse), 7. 손녀나 그 배우자 (Granddaughter or her spouse), 8. 장남이나 그 배우자 (Eldest son or his spouse), 9. 형제자매, 그 배우자 (Siblings or their spouses), 10.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Children of siblings or their spouses), 11.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Parents' siblings or their spouses), 12. 기타 친·인척 (Other relatives), 13. 그의/그녀의 다른 가족(다른주택에 입) (Other family members (in other housing)).

〈그림 2-2〉 조사표 전체 디자인 원안

 교육 정책과 직결산·고령화 대비 정책 평가 활용합니다.			
<b>첫 번째 가구원</b> 성명 <input type="text"/>		<b>두 번째 가구원</b> 성명 <input type="text"/>	
<b>1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b>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b>1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b>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b>2 주민등록상으로 성년일과 세는 나이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b>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b>2 주민등록상으로 성년일과 세는 나이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b>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b>3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b> • 가구주란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은-은는 가구주의 배우자 양쪽 다 해당 ① 가구주                      ② 종손녀, 그 배우자 ③ 가구주의 배우자        ④ 조부모 ⑤ 자녀                        ⑥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⑦ 자녀의 배우자        ⑧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⑨ 가구주의 부모        ⑩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배우자의 부모        ⑫ 기타 친·인척 ⑬ 손녀, 그 배우자    ⑭ 그 외 같이 사는 사람(공동인 가족인원)		<b>3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b> • 가구주란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은-은는 가구주의 배우자 양쪽 다 해당 ① 가구주                      ② 종손녀, 그 배우자 ③ 가구주의 배우자        ④ 조부모 ⑤ 자녀                        ⑥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⑦ 자녀의 배우자        ⑧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⑨ 가구주의 부모        ⑩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배우자의 부모        ⑫ 기타 친·인척 ⑬ 손녀, 그 배우자    ⑭ 그 외 같이 사는 사람(공동인 가족인원)	
<b>4 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b> • 일정교시에 합격한 경우 정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① 안 받았음(이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졸업 ③ 중학교                        ④ 재학 ④ 고등학교                      ⑤ 수료 ⑤ 대학(교)(순계미안)        ⑥ 대학(교)(순계이상) ⑥ 대학원 석사과정        ⑦ 대학원 박사과정 ⑦ 대학원 박사과정		<b>4 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b> • 일정교시에 합격한 경우 정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① 안 받았음(이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졸업 ③ 중학교                        ④ 재학 ④ 고등학교                      ⑤ 수료 ⑤ 대학(교)(순계미안)        ⑥ 대학(교)(순계이상) ⑥ 대학원 석사과정        ⑦ 대학원 박사과정 ⑦ 대학원 박사과정	
<b>4 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b> • 일정교시에 합격한 경우 정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① 안 받았음(이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졸업 ③ 중학교                        ④ 재학 ④ 고등학교                      ⑤ 수료 ⑤ 대학(교)(순계미안)        ⑥ 대학(교)(순계이상) ⑥ 대학원 석사과정        ⑦ 대학원 박사과정 ⑦ 대학원 박사과정		<b>4 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b> • 일정교시에 합격한 경우 정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① 안 받았음(이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졸업 ③ 중학교                        ④ 재학 ④ 고등학교                      ⑤ 수료 ⑤ 대학(교)(순계미안)        ⑥ 대학(교)(순계이상) ⑥ 대학원 석사과정        ⑦ 대학원 박사과정 ⑦ 대학원 박사과정	

[그림 2-3] 조사표 전체 디자인 수정안

첫째, 가구형태 및 평균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라 한 부의 조사표에 작성 가능한 가구원수를 5인에서 4인으로 축소하였다. 2000년 주된 가구형태는 4인가구(31.1%)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24.3%)로 가구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며, 평균 가구원수도 2000년 3.1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줄어들었다. 작성가구원수를 4인으로 축소하면서 조사표 질문과 응답범주의 글자 크기가 0.5포인트 가량 확대되었다.<sup>27)</sup>

둘째, 맨 왼쪽 열에 있는 작성예시를 삭제하였다. 작성예시는 일부의 응답자에게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해당 항목에 대한 독립적인 예시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연관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조사표 원안의 이름·성별·연령 칸에 52세·남자·홍길동이, 총출생아수 항목 칸에 남 2명 여 1명으로 작성 예시가 되어 있다. 실제 총출생아수 항목은 여성 기혼자만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참가자들은 작성예시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예시에 사례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남성 기혼자도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특정의 참가자는 아동을 누가 돌보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질문은 읽지 않고 작성예시만을 본 후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으로 잘못 이해하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27) 기입 가능한 가구원수를 5인에서 4인으로 축소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사표 인쇄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2010년 5인 이상 가구는 전체의 8.06%였으며, 6인 이상 가구는 1.85%였다. 이는 2000년도에 비해 각각 13.4%, 3.4%에서 줄어든 것이다.

셋째, 질문과 응답범주를 통합하였다. [그림 2-2]의 조사표 원안을 보면 질문은 두 번째 열에, 5명 가구원 열 각각에는 응답범주만 배치되어 있다. 이는 주제별로 질문하기 수월하게 구성한 것으로 조사원 면접식에 적합한 형태이다. 그러나 자기기입식에서는 두 번째 이후의 가구원에 대해 응답을 하는 경우, 조사 질문을 금방 기억해 내지 못해 다시 질문 혹은 작성예시로 시선을 이동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질문과 응답범주는 인접한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정안에서는 질문과 응답범주를 통합하였다.

이와 함께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부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2-4]와 같이 조사표 원안에는 모든 항목에 제목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목의 경우 실제 응답자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사자를 위한 목적이 있다. 항목별 제목을 삭제 후 동일한 주제하의 항목들을 인접하게 배치한 후 주제별 제목을 삽입하여 다음 문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혼인상태, 혼인연월,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항목을 조사표 수정안에서는 혼인출산에 관한 주제로 묶어 응답자들의 사고과정을 연관성 있게 하도록 배려하였다([그림 2-5]참고). 또한, 지시문을 시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응답자가 해당·비해당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였다. 다음 질문으로 유도하거나 질문을 건너뛰도록 하는 지시문에 명확한 시각적 효과를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그림 2-4]의 26번 항목은 기혼 여성만 응답하도록 하는 지시문이 항목의 제목 위에 표시되어 있는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수정안(20번 항목)인 [그림 2-5]를 보면 질문 도입부에 지시문을 배치하였으며 특히 해당되지 않을 경우 00번으로 넘어가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b>24 혼인상태</b>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시합니다.	① 미혼 → 20번으로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b>25 혼인연월</b> 결혼(초혼)은 언제 하였습니까? • 재혼의 경우에도 초혼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년 [ ]월 ① 양력 ② 음력
<b>기혼(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여성만 기입합니다. [ 26 ~ 27 ]</b>	
<b>26 총 출생아 수</b> 지금까지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미결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기입합니다. • 미혼여성인 출산한 자라도 포함합니다.	남 [ ]명 여 [ ]명
지금까지 낳은 자녀 중에서 사망한 자녀는 몇 명입니까?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합니다.	남 [ ]명 여 [ ]명 ① 있음 → [ ]명 ② 없음

※ 16세 이상(주민등록상 1997년 이전 출생) 가구원의 혼인·출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b>19</b> 이 분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여부를 표시	① 미혼 → 20번으로 ②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b>19A</b> 결혼생활(동거포함)을 최초로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 재혼의 경우 초혼을 기준으로 기입	[ ]년 [ ]월 ① 양력 ② 음력
<b>20</b> (여성만 응답, 남성은 22번으로 이동)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까? ① 남 [ ]명, 여 [ ]명 ② 없음 → 21번으로	
<b>20A</b> 혹시 이 중에서 사망한 자녀는 몇 명입니까? ① 남 [ ]명, 여 [ ]명 ② 없음	
<b>21</b>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	① 있음 [ ]명 ② 없음

[그림 2-4] 조사표 세부 디자인 원안

[그림 2-5] 조사표 세부 디자인 수정안



## 제4절 결 론

조사표를 재설계(redesign)하는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항목을 변경하느냐 혹은 이전 시점과의 비교를 위해 항목을 유지하느냐이다. 이것은 부합될 수 없는 목적인 양 설명되는 경향이 있으나, 기실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시계열이 유지되는 한에서 이전과의 비교를 통해 현 시점의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계열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물어지고 있는 핵심 항목들을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인구주택총조사는 현재 여러 측면에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인지면접을 적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에서 응답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 및 해석상의 문제들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안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개선의 시발점 역할을 한다.

이 연구가 조사표 분야에서 갖는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구체적인 경험적 근거를 통해서 조사표 개선안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사표 설계는 연구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조사표 항목 및 조사표 전체 디자인에서 변경 등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 과정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근거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이 연구는 각각의 항목이 어떠한 인지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인지면접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모범적인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조사표 개선 과정에서 인지면접을 활용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전문가검토나 현장시험조사를 통한 조사원 보고 위주로 조사표를 개선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응답자 관점에서 조사표를 개선했다는 눈여겨볼 만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면접 분석결과와 실제 인지면접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적시하고 그로부터 인지면접 방법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 1. 조사표 설계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윌리스(Willis, 2005)가 인지면접에서 식별된 문제의 상당부분(60~70%)이 개념 및 질문 이해 문제와 관련된다고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수 진단되었다. 여기에서는 코나드와 블래어(Conard and Blair, 1996)가 제시한 질문이해 → 과제수행 → 응답보고 순에 따라서 도출된 문제를 분류해보았다. 코나드와 블래어는 당초 4단계 질문응답과정 중 정보인출과 판단추정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과제수행단계로 명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실제 발화과정 프로토콜을 분석함에 있어서 도출된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이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 이해문제

응답자가 해당 개념 및 용어를 모르는 경우, 개념 및 용어는 알 돼 조사자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 질문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등에서 이해문제가 발생한다. 인지면접 결과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가구주, 식사용방 등의 개념을 낮설어하였다. 가구주는 세대주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식사용방 등은 해당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용어로 참가자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5년 전 거주지 항목에서 시군구 개념, 가구·집·주택의 구분, 통근통학 항목에서의 평소 등은 참가자들에게 익숙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면접 결과 조사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개념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 • 과제수행(정보인출 및 판단추정)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을지라도 해당 정보를 인출하거나 인출된 정보를 요약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주거용 및 대지면적 등은 정확한 정보인출이 어려운 대표적인 항목이다. 해당 정보가 민감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는 경우 등도 있다. 나이 항목에서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혼인상태 및 총출생아수 항목 등은 응답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항목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인지면접에서는 그 거부감이 예상과 달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인지면접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을 감안한다면, 면접원이 원하는 대답을 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는 실험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로 볼 수 있다(Willis, 1999).

### • 응답보고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항목이 참가자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오차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혼인상태에서 동거 및 별거 정의, 가구구분 항목에서 가족의 개념이 그러하다. 혼인상태를 측정하는 기존의 조사 항목에는 동거나 별거 범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거나 별거 해당자는 다른 범주에 강제로 응답해야 한다. 가족의 경우에도 핵가족화 등의 이유로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가 조사자가 정의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비해 협소해짐에 따라서 현재의 항목에서는 적합한 분류가 어려운 것으로 진단되었다.



## 2. 인지면접 방법론에 대한 시사점

박영실·송호만(2009)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표 개선에 시범적으로 인지면접을 활용한 것을 제외하고 조사표 설계에 인지면접을 적용한 예는 국내에서 매우 드물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인지면접 방법론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참가자 채용, 인지면접 준비, 프로토콜 작성 및 면접원 훈련 등 인지면접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정리해봄으로써 향후 인지면접 방법론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가자 채용

이번 인지면접에서는 홈페이지와 베틀시장 등을 통해 참가자를 채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한계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를 채용하는 경로에 따라서 지원자 특성이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라운드에서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지원자를 받았는데 그 결과 특정 계층에 한정적으로 모집되는 경향이 있었다. 2라운드에는 홈페이지와 베틀시장에 동시에 공고를 냈는데, 두 매체별 지원자 특성을 비교해 보면 50대 이상인 경우가 인터넷은 19.4%인데 반해 베틀시장은 45.5%였다.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인터넷은 41.7%인데 반해, 베틀시장은 57.6%, 고졸이하의 경우 인터넷은 36.1%, 베틀시장은 81.8%로 인터넷에 비해 베틀시장에서 조사 취약계층의 지원이 두드러졌다. 이것은 향후 응답자 채용에 있어서는 모집하고자 하는 집단에 적절한 채용 경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특정 조사에 대해 인지면접 대상자를 모집할 경우, 해당 조사에 관심이 있거나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인지면접이 이루어질 경우 인지면접의 순수한 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번 인지면접에서도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임시조사원 및 내검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하였는데 이들은 통계용어 및 조사표 등에 익숙해져 있어 인지면접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인지면접 참가자를 모집할 경우, 이 점을 염두해 두고 사전선별 질문을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 • 인지면접 일정 조정 및 장소 선정, 사례비 지급 방법

인지면접 일정 조정 및 장소 선정, 사례비 지급 등은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참가자와 조사자 간 신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참가자 선정 기간과 인지면접 기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참가자의 연령대가 높을 경우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라운드 인지면접 시 실제 3명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참가자 리스트를 선정해 놓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 인지면접 장소 선정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통계청 이외의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될 경우 공신력이 있는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응답자들의 의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sup>28)</sup>
- 사례비는 인지면접 완료 후 계좌입금하는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선정된 참가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참가자로부터 사례비 지급에 대한 독촉전화가 있었다. 향후에는 현장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 프로토콜 작성 및 면접원 훈련

잘 짜여진 프로토콜과 면접원이 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지면접 결과가 좌우되므로 프로토콜 작성과 면접원 훈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모든 면접원이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구어체로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장은 실제 상황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면접원이 상황에 따라서 의역하게 될 경우, 그것이 모든 응답자에게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분석상의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인지면접의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사전 연습을 통해 프로빙 지침을 구어체로 바꿀 필요가 있다.
- 면접원은 실제 프로토콜에 따른 사전 연습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무리 상황에 맞는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면접과정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다. 또한 참가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가능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프로빙 지침 이외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프로빙이 이어질 수도 있음을 예측해야 한다. 조사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연구자가 면접을 할지라도 면접 상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역할 연기(role playing) 등을 통해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2라운드 서울 면접 장소는 행정안전부 스마트 워크 센터였는데 출입구가 골목 안쪽에 있었다. 출입구를 찾기 쉽지 않아 면접원이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면접장소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인 여성 참가자가 거부감을 노출한 바 있다.



### • 업무량 배분

적정한 양의 업무량을 배분하는 것은 면접원이나 참가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면접원이나 참가자 모두에게 과도한 양의 업무량이 부과될 경우, 피로감이 축적됨에 따라서 면접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 인지면접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인지면접은 평균 한 시간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된다(Willis, 1999). 그런데 인지면접의 양은 응답자의 특성, 조사표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조사표 상에는 건너뛰기 등 다양한 지시형태가 존재하며, 응답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은 설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인지면접원의 적정 업무량은 1일 2건 정도이다. 실제 면접과정은 1시간 정도가 소요될 지라도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완료한 후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면접 간 30분 정도의 휴식 시간 등을 포함하여 면접원 1인당 하루에 2건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윌리스(Willis, 1999)는 이것을 고려하여 하루에 3건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지면접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는데, 물론 인지면접은 소규모 자발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면접 결과를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사 실무자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오차의 원천을 응답자로부터 직접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표 설계 시 응답자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자료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인 특징이다. 특히 소규모에 대한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도출된 인지면접 결과는 대규모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여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가구구분 항목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지면접 결과는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여전히 질적 방법론이 갖는 한계가 있으나, 이는 여타의 조사표 설계 방법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조사표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평가의 목적, 시간, 비용 등의 조건 하에 특정의 방법을 선택하되, 다양한 방법을 고루 포함하는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 조사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인지면접이 실험실 안에서 진행되는 방법론인 만큼 실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 남기철, 2004, 가족개념과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월간복지동향 74: 22~39.
- 박영실·박현정, 2012, 조사표 평가 방법론에 관한 최근 동향, 통계개발원, 발간예정.
- 박영실·송호만, 2009,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표 개선방안 연구: 인지적 접근법의 적용, 통계개발원, 미간행.
- 양옥경, 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75~199
- 이영숙·박경란, 2002, 청년과 중년의 가족 개념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10): 217~230.
- 이연주, 2008, 동거와 한국가족: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동거자의 특성, 한국인구학 31(2): 77~100.
- 최은영·조순기·박영실, 2008, 인구이동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특성 분석, 통계개발원.
- Beaty, P. C. and G. B. Willis, 2007. "Research Synthesis: The Practice of Cognitive Interviewing," *Public Opinion Quarterly* 71(2): 287-311.
- Census Bureau, 2007, Guidelines for Designing Questionnaires for Administration in Different Modes.
- Conard, F. and J. Blair, 1996. From Impressions to Data: Increasing the Objectivity of Cognitive Interviews. In *Proceedings of the Section on Survey Research Methods,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Alexandria, VA: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pp: 1-10.
- Eurostat, 2006, *Handbook of Recommended Practices for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Testing in the European Social Statistical System*. Eurostats.
- Hyunjoo P. and M. Sha, 2009, "Cognitive Testing as a Method of Pre-testing Questionnaires in High and Low Context Cultures: a Comparison of Korean and English Cognitives Interview Data," presented at 2009 AAPOR Conference.
- Prufer, P. and Rexrodt, M. 2005. *Kognitive Interviews*. ZUMA How-to-Reihe 15, Mannheim.
- Tourangeau, R., L. J. Rips., and K. Rasinski, 2000. *The Psychology of Survey Response*. Cambridge.
- United Nations, 2008,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2*. United Nations.
- Willis, G. B., 1999. "Cognitive Interviewing: A How To Guide".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 Willis, G. B., 2005, *Cognitive Interviewing: A Tool for Improving Questionnaire Design*. Sage Publications.

<부록 1> 인지면접 참가자 모집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adding: 2px 5px;"> <b>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심층면접 참가자 모집</b> </div> <p>통계개발원 통양문책실에서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원목을 개선하고자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인구와 주택의 총 수 및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층면접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작성 후, 항목별로 면접원이 추가로 찾아보는 질문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층면접 내용은 <u>관심분야의 주제로도</u> 논의될 수도 있음</li> </ul> </li> <li>- 일시: 5월 중 1일, 1시간 반 가량 소요</li> <li>- 장소: 추후 공고 시를 및 대건 예정</li> </ul> </li> <li>• 모집대상: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다양한 특성의 참가자를 선발하기 위해 참가신청서 정보를 근거로 참여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 연성 및 다세대 전월세 거주자 우선 선정</li> </ul> </li> <li>-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지급</li> </ul> </li> <li>• 모집인원: 00명</li> <li>• 모집기간: 2012년 5월 1일 ~ 5월 10일</li> <li>•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층면접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editerc@korea.kr)로 접수</li> <li>- 문의 : 30미진 042-366-7310)</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adding: 2px 5px;"> <b>심층면접 참가신청서</b> </div> <p>성명 _____ 연락처: _____ 거주지: _____ 구 _____</p> <p>※ 본인내용은 신분증상 대외지 적예중 무의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0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업무(면시형 및 새로 출)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li> <li>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li> <li>3. 귀하의 성별은?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li> <li>4. 귀하의 교육수준은?  <input type="checkbox"/>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이상</li> <li>5. 귀하의 출신지(읍)는?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광주/대전/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지방</li> <li>6.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임대주택인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li> <li>7.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li> <li>8.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 명</li> <li>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_____</li> <li>10. 해당 면접 직장을 추천하더라도 면접에 참여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li> </ol>
---	---

<부록 2> 인지면접 안내문

**2016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표 설계론 귀한 경험연결**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계개발원에 근무하는 ○○○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서 모든 인구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유형의 가구 및 주택에서 거주하는지 등의 정보를 얻어 사회·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항목을 개선하고자 응답자로부터 더 직접 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심층면접의 목적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를 응답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 조사항목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질문을 읽거나 들었을 때 떠오른 어떠한 생각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접 과정은 응답자의 동의하에 녹음이 되는데, 이 자료에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면접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 6월 통계청 통계개발원

<부록 3> 인지면접 자료제공 및 녹음 동의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표 설계」 인지면접  
- 자료제공 동의서 -**

1. 본인은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표 설계」를 위한 인지면접에 참가하고 해당 자료가 연구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름: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2. 본인이 참가하고 있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표 설계」를 위한 인지면접 과정이 녹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름: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